

# 안전무시 사고시 '징벌적 손해' 추진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 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안전무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

## 행안부, 안전정책 조정회의서 관행 근절대책 발표

피난시설 임의로 폐쇄, 물건 적치 행위 근절

불법 주·정차 차량 범칙금 4만~8만원 상향

산불 가해자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

건설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3000만원

스쿨존 범규 위반자·구명조끼 미착용 처벌 강화

하는 제도다.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은 "제천참사 등으로 통해서 기존의 법보다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사회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악의적인 화재예방 대응에 대해선 징벌적으로 강하게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4만

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방 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과 물건에 대한 이동 조치를 강화한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방시설 등 중요시설의 표시방법을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건설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실제로 인한 산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화죄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구역·보호수 방화)에 처해진다. 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산불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를 추진한다. 산발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발 취약지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통제구역 지정 관리를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신호 위반 등 고위험 범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과태료 부과에서 범칙금·벌점 부과, 형사 처벌의 단계다.

구명조끼 미착용도 처벌이 강화된다. 유·도선 선원과 종사자 등의 승객들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조치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확대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나리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됐을 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백영규 전주시의원 재선 도전

전주시의회 백영규 시의원이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발전 결실을 강조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전주시가 선거구(완산·중앙·중화산동)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처음 정치에 입문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마음에 속 드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백 의원은 전북 최초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결산감사 대표위원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주민들의 숙원인 중화산도서관 건립, 완산동 용머리 육교 철거, 화산공원 정비 등을 풀어내면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재선을 통해 중화산도서관 완공, 동화역명기념공원 완성, 완산공원 명소화 사업,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 추진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 지역 발전을 위한 결실을 거둬들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동취재반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취객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후 숨진 강연희 소방경 영결식

취객을 구조하다 폭행당해 한 달 만에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3일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거행됐다.

이날 영결식은 익산소방서장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에는 유족과 조종목 소방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악력 보고와 특진 추서, 공로장 봉정, 추도사,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봉춘 익산소방서장은 "늘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방을 빛내던 당신을 이렇게 홀연히 떠나보낼 줄 알지 못했다"며 "강연희라는 아름다운 별은 저지만 송고한 회

생정신은 119 역사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들과 유족들은 슬픔 속에 영결식을 치르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강 소방경을 태운 운구차는 노제를 지내기 위해 고인이 근무했던 익산소방서 인화센터로 향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익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자신이 긴급구조한 40대 취객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수술했으나 병세가 악화돼 지난 1일 숨졌다.

전북도는 강 소방경에게 이날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이상민 기자



3일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열린 익산소방서에서 동료 소방관이 위패를 들고 영결식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故 강 소방경은 취객을 구조하던 중 폭행당한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 "왜 말대꾸하냐"... 알바생

폭행한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전주 모 편의점 업주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19)군이 "소리 지르지 말라"면서 말대꾸하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2에 신고하려던 B군의 귀와 뺨 등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트리고 넘어진 B군을 발로 걷어차 전기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면서도 "다만 폭행 동기와 방법, 정도, 횡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강력 처벌"... 국민청원 붐물

광주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을 폭행해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하게 조치해주셔야 할 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3만1800여 명이 동의했다.

A(34)씨 일행(남성 7명·여성 3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광주 광산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친 뒤 같은 술집에 있었던 B(33)씨 일행(남성 3명·여성 2명)과 택시 승차 문제로 다투었다.

B씨 일행이 특정 여플을 통해 부른 택시를 A씨 일행 중 1명이 먼저 타고 가면서 집단싸움이 일어났다. 심하게 다친 B씨는 실명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동 상해 혐의로 A씨 일행 중 3명을 구속했다. /뉴시스

## 탄소융합기술원, 전북 전략산업 채용설명회

비나텍 등 탄소기업 10곳 참여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해온 탄소산업과 드론산업이 관련기업들을 키워내면서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로 연결되고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3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라운지에서 '전라북도 전략산업 탄소·드론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전략산업인 탄소 분야 기업의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지역신산업선도인력 양성사업 참여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고, 석·박사 연구원 취업확대와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된 일자리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신산업선도인력 참여연구원과 도내 취업희망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내 탄소·드론기업의 채용 요강 소개 △현장 이력서 클리닉 △개인별 종합 컨설팅 △취업 이력서 사진 촬영관 등이 운영돼 취업을 준비하는 도내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이날 채용설명회에서는 (주)비나텍, (주)테크항공, (주)한국물도, (주)테크카본, (주)세기종합환경, (주)피치케이비, (주)뉴니온씨티, (주)성진에어로, (주)하늘항공, 비모아 등 도내 탄소·드론기업 10사가 참여해 채용상담부스도 운영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